

1997년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상시책의 방향

목 차

- I. 최근의 우리산업 여건
- II. 금년도 여건
- III. 1997년도 통상시책의 방향
- IV. 실천과제

I. 최근의 우리 산업 여건

1.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

과거의 세계경제의 변화가 군사력·정치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는 산업경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재편되었다.

Borderless 내지 Stateless World로의 급속한 진전으로 국내 산업도 제조업, 유통, 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에 노출되면서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시장을 지배 비교우위론이 퇴색하고 절대우위론이 지배하게 되었다.

정부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경제의 핵심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2. 우리 경쟁력의 구조적 강화

우리 경제의 개방화·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출상품의 선진국 시장점유율 저하, 생산요소비용의 과다, 산업기술력의 취약 등으로 우리 산업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 대외개방의 가속화

대외개방의 가속화로 수입자유

화율이 확대 될 것이다.

OECD 가입 등으로 실물, 투자, 자본이동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방화 추세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나. 무역수지의 악화

93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작년까지 일부 회복되었던 선진국 시장점유율이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86	90	93	94	95	96
수입자유화율(%)	91.5	96.3	98.1	98.6	99.0	99.3*

* 농축산물 제외시 100%

	93	97	98	99	2000
외국인투자 자유화율(%)	83.0	97.4	98.2	98.3	98.4
외국인주식투자 한도(%)	12.0	23.0	26.0	29.0	자유화
수입자유화율(%)	98.1	99.3	99.9	99.9	99.9

* 2001년 이후 수입자유화율 100%(쌀 등 14개 품목 제외)

〈전체 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는 92년 및 93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94년부터 다시 확대되고 있다.

〈세계시장점유율〉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은 95년에는 반도체 호경기에 힘입어 2.52%까지 회복되었다가 96. 6월에는 2.49%로 다시 감소하였다.

〈미국시장점유율〉

대미수출은 93년 이후 3년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대미수출 비중은 90년대 이후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이다.

동기간중 대만과 홍콩의 미국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국과 아세안 국가 등 후발개도국은 크게 상승하였다.

〈일본시장점유율〉

대일수출은 철강, 전자부품 등의 호조로 94년과 95년에 크게 호조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본시장점유율은 지난 88년 6.3%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서 지난 10월에는 4.6%로 떨어졌다.

다. 생산요소비용의 과다

임금, 금리, 물류비, 공장용지가격 등의 생산요소비용이 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경쟁국보다 높은 제조업 임금상승 지속

높은 금리와 취약한 재무구조로 금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라. 시설개체 등 합리화투자의 부족

○ 지난 12년간 설비투자의 내용 중 생산능력증대를 위한 투자는 75%인 반면, 시설개체를 위한 투자는 13%를 차지하였으며 시설개체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면에서 80년대 후반에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금년과 같은 경기수축기에 합리화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동화시설, 노후시설개체 등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

마. 산업기술력의 취약

주요 산업별 핵심기술이 선진국의 45~58% 수준에 불과하며 외국기술의존도(기술수입액/R&D 투자액)는 19% 수준(87~93)으로 일본의 75년 수준(5%)보다도 과다하다.

(주요사업별 기술수준(선진국=100))

기반기술	산업기계	전기/전자
45	48	46

	92	93	94	95	96
무역수지(억불)	△51.4	△15.6	△63.4	△100.6	△203.8

	92	93	94	95	96
세계시장점유율(%)	2.09	2.20	2.30	2.52	2.49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명목임금수준	3.8배	1.3배	2.2배	1.2배
실질임금수준	2.2배	1.1배	1.7배	0.95배
1인당GNP(\$)	10,076	37,618	12,044	24,750
제조업임금(\$)	15,271	44,450	13,936	26,400

* 임금수준 : 한국 86년 대비 95년, 일본·대만·미국 86년 대비 94년

* 1인당 GNP : 한국·대만 95년, 일본·미국 94년 * 제조업임금 : 94년

	한 국	일 본	대 만
우대금리(%)	9.0	2.8	7.9
자기자본 비율(%)	24.8	32.0	53.2

* 한국은 95년, 일본·대만은 94년 기준

	한 국	미 국	일 본
물류비/총매출액(94년, %)	16.9	7.0	11.3

(구성비%)

	한국			일본		
	1993	1994	1993	1993	1994	1993
생산능력증대투자	72.8	70.4	71.5	42.2	41.5	42.1
시설개체 투자	13.1	14.9	12.3	31.8	34.3	34.2

II. 금년도 여건

1. 수출입 여건

가. 수출 여건

유수한 전문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세계경제 및 교역의 긴장세가 전반적으로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개도국 등 우리 주력시장의 경제성장을 및 교역신장세는 전년도와 같거나 오히려 둔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총수출의 69.0%(95년 기준)를 차지하는 10대 수출 대상국중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수입증가율은 오히려 둔화하고 있다.

최근 주력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부진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

원화 및 엔화 환율은 안정추세로 예상되나, 95년 7월 이후 엔화 절하폭이 큰데 따른 우리 수출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나. 수입 여건

경제성장, 설비투자 둔화 및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세로 수입수요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6%대의 성장 유지를 위한 수입유발은 불가피하다.

국제원유가격은 소폭 상승이 전망되고, 이라크 등 중동사태의 유동성, 산업성장(6.4%), 자동차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이 늘어날 소지이며 고급소비재

수입은 국내소비성향에 비추어 지속될 전망이다.

* 소비재 수입증가율(%) :
(94) 24.3 → (95) 27.4 → (96e) 21.0

2. 국내경제 전망

95년 하반기 이래 지속되어온 경제적 어려움이 금년에도 쉽사리 개선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1) 경기순환과 정상하강기의 장기화로 경기 순환기적으로만 보더라도 하반기 이후에나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2)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동계의 불안요인 상존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제조업 기피 풍조의 확산으로 인적·물적자원이 외화소비적 서비스부문으로 유입되어 제조업계의 인력난 가중이 우려된다.

3) 주식시장의 침체 등으로 기업의 자기자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채산성악화로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인의 도전 의지도 자칫 저하 우려 되는 등 금년도 제조업 성장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비상한 각오와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에너지消費 實態

○ 우리나라의 인구는 세계 25위, 경제규모는 세계 1위

— 에너지소비증가율세계 5위

—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1위

— 특히, 석유소비는 세계 6위(석유수입은 세계 4위)

90년이후 선진국에 비해 현재가게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10대 교역국의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국가	95년	96년	97년	국가	95년	96년	97년
미국	11.9	6.3	7.4	싱가폴	21.3	14.8	10.3
일본	22.1	5.7	2.0	대만	21.4	0.9	19.8
중국	11.6	6.8	19.0	인도네시아	27.9	12.8	14.5
독일	16.1	3.8	4.2	영국	16.2	4.6	7.3
홍콩	19.2	2.7	13.1	말레이시아	30.5	6.3	5.7

자료: WEFA

〈미·일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수출증가율〉

(단위: %)

		93년	94년	95년	96.11월
수출증가율	미국	0.3	13.3	17.4	-9.1
	일본	-0.3	16.9	26.1	-6.6
시장점유율	미국	2.9	3.0	3.3	2.9
	일본	4.8	4.9	5.1	4.6

지속 되고 있으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이미 일본수준에 접근하는 등 에너지 해외의존도 심화로 공급안정성이 취약하다.

약과 함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

기 위해 규제적인 시책도 병행 추진, 강력한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

②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

III. 1997년도 통상시책의 방향

1. 무역수지의 획기적 감축 : 140억\$ 선으로 적자 축소(100개 과제)

- ① 수출업체 애로사항의 신속한 타개지원
- ② 수입구조의 합리화 대책마련 및 과소비 품토의 지양
- ③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별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등 범국가적 총력체제 구축
- ④ 무역수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2. 산업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기의 강력한 추진(150개 과제)

- ① 생산요소비용의 획기적 인하
- ② 생산성제고, 품질향상, 기술혁신의 과감한 추진
- ③ 산업구조고도화의 추진

3. 에너지의 과감한 절약과 수급안정(50개 과제)

- ① 장기적으로 내핍성 단순절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 전망

연도	지표	'97				
		한은	KDI	KIET	금융연구소	민간연구소
	GDP성장률(%)	6.4	6.4	6.4	6.3	6.2~6.5
	민간소비(%)	6.2	6.4	6.2	6.6	6.3~6.7
	설비투자(%)	3.7	0.2	5.4	4.1	1.0~4.3
	건설투자(%)	6.3	5.8	5.9	6.2	5.2~9.1
	경상수지(억\$)	△180	△155	△174	△167	△159~△187
	무역수지(억\$)	△87	△80	△111	△67	△74~△188
	소비자물가(%)	4.7	4.7	4.5	4.3	4.5~5.0
	생산자물가(%)	3.3	3.7	2.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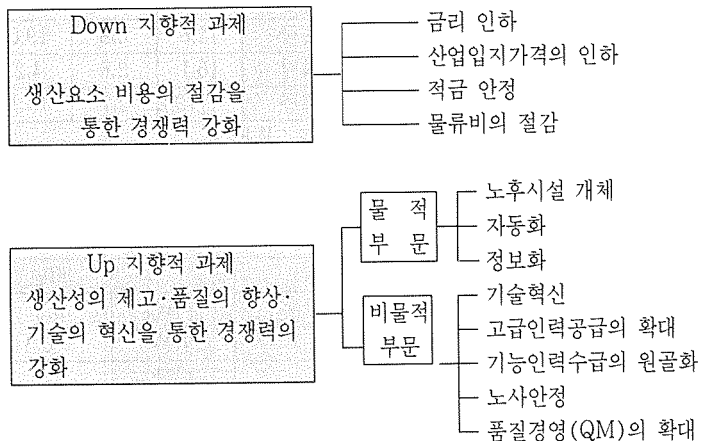
〈주요국 에너지소비증가율, %〉

	90	92	94	95
한 국	14.1	12.5	8.2	9.6
일 본	4.9	1.7	4.9	2.5
미 국	0.2	1.8	2.1	1.7
프랑스	2.6	0.6	△2.4	2.4

〈주요국 1인당 에너지소비(95), TOE/인〉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3.32	7.94	3.90	4.06

기업의 경쟁력 향상 과제 추진 체계



무역부문의 실천과제(예)

<유관기관·경제단체>

- 업계의 수출마인드 제고 및 확산
-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 전개
- 해외시장 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전파
- 업계의 애로사항 발굴 및 정책건의 활성화

<기업인>

- 새로운 시장개척, 신규상품의 개발과 기존시장관리에 만전
- 수입의 합리화
- 통상애로 발생시 정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해결 노력 전개

<근로자>

- 무역적자의 증대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 근검·절약하는 생활자세 정착
- 미래에 대비한 저축증대 노력 강화

<정부>

- 수출업계의 사기진작
- 무역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타개 지원

산업부문의 실천과제(예)

<유관기관·경제단체>

- 회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
 - 공동구매, 공동개발·판매, 단체표준 제정, 공동상표 등

공동사업 추진

- 산업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각단체별로 해당업계의 실천과제를 자율선정 추진
-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이 임금안정과 생산성향상, 경영혁신운동을 선도
- 정부투자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한 100PPM품질혁신운동 참여 등 촉진

<기업인>

-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에 주력
 - 노사화합과 임금의 안정
- #### <근로자>
- 투철한 장인정신의 확립
 - 경쟁력강화로 소속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식의 확립

<지방자치단체>

- 지역내 산업발전의 중심체 내지 선도역으로서의 사명감 확립

- 입지·인력, 기타 기업의 설립 및 운영상에 봉착하는 각종 애로의 적극적인 타개 지원

<정부>

-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지원

에너지부문의 실천과제(예)

<유관기관·경제단체>

- 소관업계의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방안연구

- 각급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세부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제도 활용 및 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대에 적극 참여

- 에너지절약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각종 민간 단체의 에너지절약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기업인>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적극 실천

- 노후 보일러 및 요·로의 과감한 교체

-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의 전환 적극 추진

-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방지 철저

<근로자·국민>

- 한 집 한 등 ㄱ기 등 주변의 손쉬운 과제부터 적극 실천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철저 시행

-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

- 관내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유도, Car Pool 활성화 등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협조

<정부>

- 범국민적 및 범산업적 에너지절약 시책의 종합 추진